

7월 전북지역 고용률 1.0%p 상승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조사 결과... 경제활동인구 늘고 실업률 줄어

2016년 7월 전북지역 고용률이 6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p 상승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도내 취업자는 93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7,000명이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2016년 7월 15세 이상 인구는 153만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0.1%)이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전년 동월에 비해 남자는 73만7,000명으로 1,000명(0.2%), 여자는 79만3,000명으로 400명(0.1%)가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94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3,000명(1.4%)이 증가했다.

성별로는 전년동월에 비해 남자는 52만8,000명으로 5,000명(1.0%), 여자는 41만5,000명으로 8,000명(2.1%) 각각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35만4,000명으로 1만 8,000명(5.2%) 증가했고 임금근로자는 57만8,000명으로 1,000명(-0.2%)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자영업자는 27만 3,000명으로 1만 5,000명(5.9%), 무급가족종사자는 8만 명으로 2,000명(3.0%)이 각각 증가했다.

자영업자 중 전년동월대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1만 8,000명으로 1만2,000명(5.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만5,000명으로 3,000명(6.4%)이 각각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37만3,000명으로 3만6,000명(10.7%) 증가 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14만7,000명으로 2만3,000명(-13.3%), 일용근로자는 5만8,000명으로 1만 4,000명(-20.0%) 각각 감소했다.

취업시간별로 보면 36시간이상 취업자는 76만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만5,000명(1.9%) 증가했고 36시간미만 취업자는 15만2,000명으로 4,000명(-2.3%) 감소했다.

또 1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8시간(-1.9%) 감소했다.

반면에 실업률은 1.3%p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8,000명으로 2,000명(-16.1%), 여자는 4,000명으로 2,000명(-30.4%)이 각각 감소했다.

2016년 7월 비경제활동인구는 58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2,000명 감소(-2.0%)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만9,000명으로 4,000명(-1.7%), 여자는 37만8,000명으로 8,000명(-2.1%) 각각 감소했다.

활동 상태별로 보면 육아 3만4,000명으로 1만명(-22.1%) 감소, 가사 18만 1,000명으로 2,000명(0.9%) 증가했다. 통학은 15만1,000명으로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호남지방통계청이 전북지역 1,600가구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6년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1주간의 경제활동상태를 점검한 수치다. /신광영기자



저렴한 가격의 꾀감 선물세트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한가위명절선물상품전에서 김영민 시행9월 28일을 앞두고 5만원 미만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보호무역 확산에 자동차·전자 업종 '위기'

15개 주요 수출업종 중 10개서 보호주의 체감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업종 15개 가운데 10개 분야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별 협회 중 15곳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10개 업종에서 직·간접적으로 보호주의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체감한다고 응답한 업종은 ▲철강 ▲자동차 ▲전자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정밀화학 ▲화학섬유 ▲화장품 ▲타이어 ▲식품 등이다.

보호주의 유형별로는 ▲미국·EU 등 선진국에서 중국의 저가수출에 대응해 시행하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 ▲중국에서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설정하는 까다로운 각종 비관세장벽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의도적 수입규제와 시스템 미비로 인한 통상예외 등이 지적됐다. /뉴시스

특히 철강 업종의 경우 중국발 과잉생산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미국 및 유럽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현지 기업들의 요구로 중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도 끼워넣기로 반덤핑 관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또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은 비관세장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국가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중국의 강제성 제품인증(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때문에 복잡한 서류와 시험결과 및 평균 7~9억원의 비용과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무역기구(WTO) 조사에서도 G20 국가의 보호무역조치가 지난해 10월 중반부터 올해 5월 중반까지 145건으로 집계돼 월 평균 약 2건에 달했다. 이는 일주일에 약 5건의 규제가 이뤄지는 셈이다. /뉴시스

전북은행, 캄보디아 주요은행 인수

아프로서비스그룹과 컨소시엄 구축 프놈펜 상업은행 인수 마무리

전북은행이 캄보디아의 주요 은행을 인수해 동남아 진출의 발판이 마련됐다.

10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전북은행과 아프로서비스그룹이 구성된 '전북은행-아프로서비스그룹 컨소시엄'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CCB) 인수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인수한 프놈펜상업은행(PCCB)은 캄보디아 소재 36개 상업은행 중 자산규모 10위권 은행으로 총자산 5천억원, 직원 200여명, 수도권 프놈펜과 주요 거점도시에 14개의 지점을 보유한 은행으로 차별화된 영업방식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캄보디아에서 경쟁력있는 은행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08년 설립이후 연간 56.5%의 높은 자산성장율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수익률(ROA) 1.5%(국내은행 평균 0.4% 내외), 연체율 0.02%, 담보위주의

특히 프놈펜상업은행이 속한 캄보디아는 연 7%수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금융기관 이용인구가 총인구의 20%이하 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 인근 국가 대비 향후 금융업 성장 가능성이 높고 거래가 미국달러로 이루어져 환리스크 또한 낮아 동남아 국가 중 금융업 진출의 최적국가로 평가 받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전북은행-아프로컨소시엄은 전북은행의 지난 47년간 한국 은행업의 노하우를 보유한 경험과 캄보디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에 대해 아프로서비스그룹(러시안캐시, OK저축은행 등)의 소비자금용 노하우를 접목해 프놈펜상업은행의 강점과 결합한 차별화된 모델을 구축, 프놈펜상업은행을 동남아시아의 대표은행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프놈펜상업은행(PCCB) 내부

대출구성 등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모든 지표가 국내은행권 대비 우수하다.

프놈펜상업은행 인수에 나선 배경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저금리 기조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균형있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수익구조를 다변화 하는 등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구글 지도반출 회의 연기

정부가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 요구와 관련해 12일 개최기로 했던 협의체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구글이 지난 6월1일 요청한 국내 지도 반출 요구와 관련해 12일 관계부처 2차 협의체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연기하기로 했다"며 "추후 회의 날짜가 결정되면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최근 정책토론회 및 언론 등을 중심으로 각계에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보다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를 하기 위

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는 반출신청 처리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그 이전에 결론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근 증강현실(VR) 게임 '포켓몬 고' 열풍이 일면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해외업체인 구글에 반출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구글은 정보기술 혁신 흐름에 뒤처질 것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뉴시스

이마트, 최대 규모 말복 행사

이마트가 말복을 맞아 '육(肉), 해(海), 공(空) 보양식을 모두 모아 사상 최대 물량으로 쏜다.

이마트는 11일부터 17일까지 총 60억원 규모의 말복 행사를 열고 백숙용 영계 오리, 바다장어, 민물 메기 매운탕 한우 등을 20% 수준에 할인 판매한다. 특히 민물 메기 매운탕 본격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이마트는 보양식 대표격인 영계를 25만수 토종닭 10만수 물량을 준비해 폭염 수요에 대응한다.

국내산 백숙용 영계(500g/마리)는 기존 2480원에서 20% 할인한 1980원에 판매한다. 특히 30일 이내에 사육해 육질이 부드럽고 연한 영계만을 골랐다. 무더위 기세를 타고 8월 들어 가격이 오름세인 토종닭(1kg)은 기존 1만8800원에서 20% 할인한 1만4040원(2마리)에 판매한다.

지난해 동기 대비 7월 판매량이 45% 증가하며 보양식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오리 역시 20% 할인한다. 한방 오리 백숙(1.8kg 부재료 포함)은 1만1950원, 냉장 오리 로스(1kg)는 9850원에 각각 판매한다.

바다 보양식도 2배 규모로 늘려 풍성하게 준비했다. 먼저 민물 메기 매운탕은 그 동안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접하기 어려웠으나 이마트가 복날을 겨냥, 대량 양식 계약을 통해 저렴하게 상품화했다. 가격은 1팩(1kg 내외)에 1만2800원으로 지난 6월에 테스트 판매를 시작한 한 달 동안 예상 매출의 2배를 넘게 달성한 바 있다. 고급 보양식 국내산 민어(횡간이 아닌 선어 상품)는 마리 당 20% 할인한 2만9800원(왕), 1만9800원(특)에 판매한다. 국내산 바다장어는 말복에 맞춰 준비한 10톤 물량을 2만9800원(박스/700g)에 판매한다. /뉴시스



가스텔바작 '골프 점프수트' 선풍

골프웨어 '가스텔바작'이 여름철 필드는 물론 여행에서도 간편하고 시원하게 연출할 수 있는 스트라이프 골프 점프수트를 선보여 뛰어난 활동성이 특징이다. 허리 끈 조절이 가능해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강조할 수 있으며, 슬리브와 스트라이프 두 가지 패턴 소재를 적용하여 경쾌함과 발랄함을 강조했다. 스트라이프 패턴을 수직으로 배치해 다리가 길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선사한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